

## 42. 조선업 도장공에서 발생한 경증독성뇌병증, 기질성 기분장애

성별 남 나이 46세 직종 도장업 업무관련성 높음

**1. 개요:** 유○○은 1984년 조선소에 입사하여 선행도장부에서 20년간 스프레이 사수로 근무하면서 정신과 의원 등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오면서 2005년 1월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기질성 기분장애(만성독성뇌병증)로 진단받았다.

**2. 작업환경:** 근무하던 부서는 선행도장부였는데, 이 부서는 블라스팅 작업이 된 철판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장작업을 하는 부서이다. 선행도장부의 도장작업은 블록이 완전히 형성된 상태에서 실시되므로, 밀폐 공간 또는 몸을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깊숙한 공간 속에서 도장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. 작업 중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였지만, 얼굴의 피부는 노출된 상태여서 자극증상이 많았고,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가스때문에 눈이 따가워 앞을 보기가 어려웠으며, 정신이 몽롱하고, 힘이 없고, 술이 취한 사람 같은 행동을 할 때가 많았다. 특히 여름철에 탱크 내부 도장작업을 할 때는 탱크 내부 온도가 섭씨 70-80도를 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. 1997년 측정한 선행도장부의 혼합유기용제 평균 노출수준은 평균 2.08 ppm 수준이었다.

**3. 의학적 소견:** 하루 1/3갑의 담배를 20년 동안 피웠으며, 음주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. 10년 전 무렵부터 등, 허리, 무릎에 통증과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껴 왔고, 5년 전 무렵부터는 수면 장애, 무기력감, 신경질적인 모습, 심한 피로와 신체적인 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. 가족에 의하면 성격도 난폭해 지고 화를 자주 내며, 3년 전부터는 본인이 5분 전에 한 일을 기억을 못할 정도로 기억력이 감퇴하였다고 한다. 2002년 6월부터는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며, 최종적으로 만성독성뇌증으로 진단되었다.

**4. 결론:** 유○○의 경증 독성뇌병증 및 기질성 기분장애는

- ① 선박제조업에서 약 19년 동안 도장작업을 하면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는데,
  - ② 도장작업 시작한 지 13년을 전후한 무렵 불면, 두통 등 경증 만성독성뇌병증과 관련된 증상이 시작되어 2005년 기질성 기분장애로 진단되었으며,
  - ③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기질성 기분장애 등이 특징으로 나타나는 경증 독성뇌병증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,
  - ④ 이러한 증상이 동반되는 다른 질환이나 약물복용 및 생활사건이 없었으며,
  - ⑤ 이 근로자의 경증 독성뇌병증 및 기질성 기분장애는 도장작업 중 노출된 유기용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,
- 경증 독성뇌병증 및 기질성 기분장애는 작업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.